


요약이력서

	■ 인적 사항			
	성명	정 창 식		
	소속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직위	책임연구원
	대한지질학회 회장후보로 선정된 후부터 선거 당일까지 이 요약이력서를 대한지질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함을 동의함. 2019년 7월 15일 성명 : 정창식 (서명)			

■ 학 력		
1982.3-1986.2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	이학사
1986.3-1988.2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질학과 (지질학 전공)	이학석사
1993.3-1997.2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질학과 (지질학 전공)	이학박사
■ 주요 경력		
1989.10-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근무	2002.3-현재 책임연구원
2005.6-2008.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부장	지질관련 연구업무 총괄
2005-2007	공공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산하기관 평가 수행
2008.7-2010.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부장	연구업무 총괄 관리
2008-2009	UN이 정한 지구의 해 한국위원회 기획총괄분과위원장	준비 실무 총괄
2008-2010	국과위 전문위원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기획
2009.9-현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사 1 배출
2010.3-현재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연교원	석사 3 배출
2018.8-현재	Journal of Analytical Science and Technology (Springer/Nature 발간, SCIE) 편집위원장	편집 업무 총괄
■ 학회 경력		
[대한지질학회]		
2001-2003	대한지질학회 1대 전문위원	
2004-2005	대한지질학회 32대 이사(※총무이사)	
2012-현재	Geosciences Journal Editorial Board Member	
2018-2019	대한지질학회 39대 이사(※부회장)	

■ 주요 연구 분야		
• 동위원소 지질학		
• 연대측정학		
• 화성암 성인론		
• 질량분석학		
• 뼈, 치아 동위원소 연구		
■ 학술활동 실적		
논문	국내	54 편
	국외	60 편
특허	국내	편
	국외	편
저서		편

■ 대표적인 논문	
○ 제목	Magmatic response to the interplay of collisional and accretionary orogenies in the Korean Peninsula: Geochronological, geochemical, and O-Hf isotopic perspectives from Triassic plutons
○ 주요내용	<p>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Bulletin에 2019년 3월 발간된 이 논문에서는 경기육괴와 영남육괴 트라이아스기 화성암의 저어콘(zircon) U-Pb 연대와 전암 화학조성, 저어콘 O-Hf 동위원소 조성으로부터 충돌형과 부가형 조산운동의 연계 및 마그마 기원물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영남육괴 연변부의 화강암-화강섬록암-반려암과 그 내부에 있는 섬록암-화강섬록암질 포획암의 저어콘 연대 (약 265-250 Ma)는 경기육괴를 둘러싸고 있는 임진강대와 옥천대의 바로비안(Barrovian)형 변성연대와 비슷하거나 다소 젊어 판게아(Pangea)나 곤드와나(Gondwana)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대륙 충돌에 의해 내부로부터 연변부로 전달된 응력이 해양판 섭입의 활성화를 일으켰음을 시사한다. 영남육괴에서는 영덕 아다카이트(adakite)의 생성 후 대략 15 Ma 정도 화성활동이 멈췄다가 232-224 Ma에 대륙 안쪽 방향으로 옥천대까지 Mg이 풍부한(magnesian) 칼크 알칼리(calc-alkaline) 계열 화성암이 관입하였고 220-217 Ma에 Fe가 상대적으로 많은(ferroan) 알칼리 계열 화성암이 관입하였다. 이로 보아 약 220 Ma에 섭입 환경이 전진형(advancing)에서 확장형(extensional)으로 변함과 동시에 아마도 지각 하부에 집적된 염기성-초염기성암이 에클로자이트(eclogite)로 변하면서 엽렬(delamination)이 일어났던 것으로 추측된다. 경기육괴 내부와 영남육괴의 트라이아스기 염기성암 저어콘에서 최초로 보고되는 산소 동위원소 조성은 모두 전형적인 맨틀에 비해 ¹⁸O이 뚜렷하게 부화되어 있었으며 그 하프늄 동위원소 조성으로 볼 때 각각 고기(아마도 고원생대)와 상대적으로 신기(아마도 고생대)에 교대 작용을 겪은 암석권 맨틀에서 기원되었음을 지시한다.</p>